



創造·開發·奉仕로

— 有機的인 協調로

敬愛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創立 15 周年을 맞이하게 된 것을 會員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科總은 元老科學技術人과 先輩여러분들의 至極한 精誠과 努力으로 지난 66 年 어려운 與件을 克服하면서 出帆하여 設立目的을 確立하고 科學技術會館을 建立하는등 오늘의 基礎를 마련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創立 15 周年에 즈음하여 先輩여러분들의 崇高한 意志를 吟味하면서 그 高邁한 精神과 勞苦에 대하여 會員여러분과 함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感謝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科總은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持續的인 發展은 勿論 科學技術의 振興暢達을 爲하여 不斷히 邁進하여 왔읍니다.

本人이 지난 78 年 3 月 여러 先輩와 同志들의 勸誘로 會長에 就任하면서 밝힌 바와같이 그 동안 우리 科總은 科學技術人들의 權益伸張과 資質向上을 圖謀할 科學技術振興政策을 비롯한 國家研究課題의 導出과 國民生活의 科學化運動을 展開하여 國家發展에 寄與코자 努力하였읍니다.

이제 科總은 各 分野에 걸쳐 傘下에 1 百 60 餘個 學會團體會員을 갖게 되었으며 4 個의 國際科學技術機構에 加入하여 活動하게 되므로서 世界 尖端科學技術의 消化와 應用發展을 爲한 情報를 交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學會, 團體代表가 參與하는 評議員會와 政策, 防災科學, 住宅問題 등의 研究委員會를 新設하여 새로운 發展策을 摸索하는 한편 當面한 問題點과 改善 및 振興策을 關係要路에 建議한 바 있습니다.

또한 國際學術세미나를 비롯하여 美洲와 歐羅巴地域에 居住하는 우리 科學技術者를 家族同伴으로 招請하여 3 次에 걸친 國內外 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를 直接 單獨主管으로 開催하였고 이제는 汎世界大會로 擴大할 수 있는 底力을 갖추는 同時에 事務處도 陣容을 整備補強하여 科總의 持續的인 發展과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에 寄與할 수 있도록 能力을 培養하므로서 面貌를 一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跳躍의 意志 실현

面貌一新에 寄與-

뿐만아니라 科學技術用語集 發刊에 이어 科學技術用語辭典과 科學技術人名辭典을 編纂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放置되고 死藏된 資料를 蒐集하고 이를 綜合整理하여 韓國科學技術 30年史를 처음으로 發刊하므로써 우리의 科學技術史를 定立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技術奉仕團의 組織과 活動을 強化하는 한편 새로운 事業으로 全國民을 對象으로한 科學化模範事例發表會를 開催하고 優秀事例을 發掘하여 이를 擴散普及시키므로써 科學人口의 底邊擴大를 促進하고 있습니다.

또한 科學技術學術活動의 核心이 되고 있는 學會支援事業도 過去에는 年間 1千萬원 規模에 不過하였으나 政府와 産學協同財團등 關係機關의 協調로 今年度에는 16배가 增額된 1億6千餘萬원을 投入하여 學會學術活動의 振作에 盡力하여 왔습니다.

이와같이 科總이 그 동안 目的事業을 비롯한 各種 主要事業을 誠實히 遂行하고 所期の 成果와 實績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關係當局은 勿論 會員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有機的인 協調에 힘입은 바 크다고 確信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解決하고 開拓해야 할 많은 課題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宿題를 打開하기 위해서는 모든 科學技術인들이 一致團結하여 創造・開發・奉仕의 精神으로 精進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會員여러분과 함께 科總의 第2段階 跳躍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그동안 科總의 育成發展에 積極 協調하여 주신 政府當局과 關係機關을 비롯한 元老科學技術人과 先輩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祖國의 무궁한 發展과 成年의 문턱에 선 科總의 앞날에 榮光이 있기를 우리 다 같이 祈願합니다.

1981年 9月 24日

會 長 閔 寬 植